흐르는 물길 따라 낙동강변 정자를 찾아가 본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흐르는 강물 따라 걷다 듣다 느끼다

주재술 지음

주재술 작가가 펴낸 '흐르는 강물 따라 걷다 듣다 느끼다'를 읽다 보면 정자를 찾아가고 싶어진다. '남도정자기행 2'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남도정자기행 1'의 후속편이다. 이번 기행의 주 무대는 낙동강 일대.

저자는 지난 10년 넘게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교육과 정책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만났다. 그러는 동안 심신이 지쳐 있었고 낙동강을 걸었다. 낙동강 상류 인근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는 중류인 대구에서 보냈으며 대학은 서울로 진학했다. 그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낙동강이 드리워져 있었다.

낙동강은 태백산맥이 부려놓은 준봉과 계곡을 따라 500리를 흐른다. 영남지역을 적시며 흐르는 강은 삼랑진에 이르러서는 호수처럼 서서히 흐른다. 말 그대로 삼랑(三浪)은 세 물결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다. 밀양강과 낙동강, 부산의 하구에서 밀려오는 바닷물이 합수되는 곳이다.

책에는 모두 10개의 정자가 나온다. 형제간 우애가 깃든 오우정을 비롯해 소구 같은 낙동강 물을 볼 수 있는 광심정, 낙동강이 베푸는 여덟가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팔락정, 삼백 년 군자 정신을 담은 군자정, 비단결 물결 위에 세워진 거연정, 요산요수의 공간 호연정이 등장한다.

오우정(五友亭)이라는 정자는 삼랑진 나루터 언덕 위에 있다. 상상만으로도 그림이 그려진다. 원래 이곳에는 삼랑루나는 누각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일대의 절경이 기록돼 있다. 고려 말 원나라 내정간섭이 심했던 당시 큰 스님이었던 충지 원감국사(1226~1293)가 삼랑루에 취해 쓴 시다. 이십 대에 출가한 그는 1286년부터 순천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던 큰 스님이다.

"호수 위에 청산이요 청산 위에 누각이라/ 아름다운 그 이름 오랫동안 강물 함께 흐르네/ 물가 모래밭 가게들 달팽이처럼 늘어서 있고/ 물결 좇는 돛단배 익두 춤추는구나/ 뽕나무밭 연기 짙어 천리가 저물고/ 마름과 연꽃은 시들어 강은 온통 가을일세/ 저녁노을 외로운 따오기는 오히려 진부한 말/ 일부러 새로이 시를 지어 멋진 여행 기록하네"

오우정이 자리한 것은 육재 민구령에게서 비롯됐다 전해진다. 1510년경 낙동강 기슭에 건물을 한 채 지어 네 명의 동생과 지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청산유수 초야에 묻혀 형제들과 학문을 탐구했다.

대부분의 정자는 풍광이 뛰어난 곳에 자리한다. 계곡의 바위 위에 세워진 함양 거연정(왼쪽)과 낙동강 인근에 세워진 함안 광심정. 〈빈빈책방 제공〉

정자는 주변을 아우르는 산과 사이사이 들판,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함께 아름다운 풍광을 만든다. 저자는 나무와 바위 모양을 헤아려 자연의 조화를 깨지 않는 곳에 건물을 지은 안목을 높게 평가한다.

팔락정은 이름에 자연과, 인간의 즐거움을 담은 정자다. 경남 창녕 유이면 미구리 마을 언덕에 자리한다. 한강 정구(1543~1620)가 1580년에 세운 팔작지붕 목조기와 건물이다.

"팔락정 마루에 올라서면 보이는 낙동강 건너 맞은편 산자락은 한 마리 호랑이가 되어 물살을 건너 밀려오는 것 같아서 '맹호도강'(猛虎渡江)이라 하였다. 붉은 노을을 가득 품은 범선들이 사람과 물자를 가득 싣고 포구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원포귀범'(遠浦歸帆)이라 하였다. 고기잡이 떠나거나 물건 팔러 길 나섰던 남편과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는 감사한 저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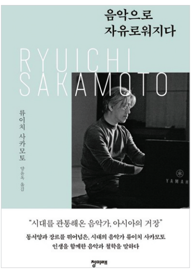
경남 함양 봉전마을 황석산 끝자락에 자리한 거연정은 1640년 전시서라는 인물이 세운 것이 시초였다. 서원철폐령 당시 사라졌다 1872년 후손들이 다시 건립했다. 거연정이라는 이름은 전재하가 쓴 '거연정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주자가 쓴 시 '정사'(精舍)의 구절에서 따왔다. '주자가 무이산에 들어가 무이정사를 짓고 살며 풍광을 노래'한 시다. 거연정은 계곡의 바위에 올려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흐르는 푸른 물과 천 가지 모양의 바위들, 주변을 두른 푸른 소나무들도 함께 어울려 완성한 예술 작품 같다"는 표현이 여운을 준다.

〈빈빈 책방·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류이치 사가모토 지음, 양윤옥 옮김



지난달 세상을 떠난 류이치 사가모토는 음악의 거장이었다. 그를 설명하는 수사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음악의 개척자라고 불린다. 또한 아시아 최초 아카데미 음악상을 비롯해 골든글로브상, 그레미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영화배우, 사회운동가 등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엔진(ENGINE)'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해 묶은 책이 발간됐다.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는 류이치 사가모토가 가졌던 음악가로서의 고민은 물론 동시대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최초 자서전인 셈이다.

유치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접한 그는 10내 시절 내내 음악을 공부하며 점차 자신의 세계를 넓혀간다. 클래식 음악, 팝, 현대음악에까지 범위를 확장해가며 전자음악에서 음악의 대중화 방안 등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도는 물론 아프리카 등 민족음악에도 관심을 보였고 민중을 위한 음악을 견지했다.

10대 때 류이치 사가모토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교복 철폐, 생활 통지표 폐지 등을 기치로 수업 거부를 이끌기도 했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민중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에게 영화음악가로서 명성을 안겨준 영화는 '마지막 황제'였다. 처음에는 배우로 참여했지만 제국주의자의 역할을 맡아 고민에 빠졌고, 감독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음악을 작곡한 것이 계기가 돼 영화음악 전체를 맡기도 했다.

9·11 테러 이후에는 평화와 반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내전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결국 그러한 것은 환경과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미래·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휴일에 하는 용서

여세실 지음

지난 2021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한 여세실 시인은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을 만큼 이름이 이색적이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은 예리한 언어와 독특한 발상이 곁들여져 있는 게 특징이다.

"오랜 훈련을 거친 사람의 내공이 단연 돋보인다"는 찬사와 함께 문단에 나온 그는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펴낸 시집 '휴일에 하는 용서'는 삶의 순간마다 목도하게 되는 감정들을 독특한 결로 그려낸다. 특히 이번 시집은 첫 시집을 발간하는 이를 대상으로 초판 한정 어나더커버가 제공돼 색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표지부터 이색적인 작품집은 모던하면서도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분갈이를 할 때는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 한다//중략// 잎이 붉게 타들어간 올리브나무는 방을 정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흙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여전히 축축한, 죽어가면서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 나무를 나는 이제라고 불러본다 흙을 털어낸다 뿌리가 썩지 않았다면 다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이제야, 햇볕이 든다/ 생생해지며 미래가 되어가는(후략)"

위 시 '이제와 미래'는 눈 앞의 시간을 모티브로 그 너머의 시간을 특유의 감각적인 언어로 발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산에서 자라는 나무의 모종 하나를 화분에 옮겨 심으면 야산의 어둠이 방 안에 넝쿨째 자라기도 한다는 걸"이라는 데서 보듯 시인의 눈은 늘 이후를 향하고 있다. 현재의 고통과 어둠을 밝음으로 치환해냄으로써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무탈하고 평온하여서 힘껏 절망할 수 있기를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고 솟아나는 슬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한다. 〈창비·1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노의 시간

수전 톰스 지음, 장혜인 옮김

100곡에 담긴 피아노 음악사의 빛나는 순간들을 담은 책이 나왔다.

영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저술가 수전 톰스가 펴낸 '피아노의 시간-100곡으로 듣는 위안과 매혹의 역사'다.

피아노 이전에도 건반악기들이 있었다. 버지널,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등의 건반악기에 이어 18세기 '피아노'가 등장하면서 표현의 혁신이 일어났다. 피아노는 이전의 건반악기들에 비해 연주자 마음대로 음을 크게 내거나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었고, 표현과 울림의 범위가 넓어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었다.

작가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주곡은 물론 협주곡과 실내악, 현란할 정도로 까다로운 곡과 쉬운 곡, 소품집이나 작품집, 때로는 특정 장르, 그리고 피아노 음악사에 한 자리 차지함이 마땅한 여성 작곡가와 연주가, 재즈 음악에 이르기까지 유연한 관점과 다양한 이유를 엮어 100조각의 역사를 추려낸다.

바흐 작품들은 후대에 피아노로 연주되며 클래식 중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다. 18세기에는 하이든을 위시해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에 이르는 '포르테피아노' 음악의 강자들이 피아노의 세계를 넓혔다.

이어 19세기에는 피아노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면서 멘델스존에서 쇼팽, 브람스를 거쳐 러시아의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자크까지 낭만주의 작곡가와 피아니스트의 백화제방 시대가 열렸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스크랴빈, 라흐마니노프, 라벨 같은 작곡가들이 엄청난 기교가 필요한 작품을 쓰고 비르투오소 연주가들은 기꺼이 이런 도전을 받아들여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다.

〈더퀘스트·2만7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